

□□□□□ .

[□□ 1] 2018 □□□□ □□ □□

27□ □□□ □ □□□ “□□□ □□ □”□□ □□□□ □□□□□ □ □□ □□□□ □□□□ □□. □□
 ARD □□□ 1□, □□□□ □□ □□□□ □□□□ □□□□ “□□ □□□ □□□” □□ □ □□ □□□□□
 □□□ □□ □□□ □□ □□□□ □□□□ □□□(Süddeutsche Zeitung)□□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2018-06-27 20:00
- □□: 2□ □□□
- □□□: □□□□ □□ 1,000□ □□ 1,000□
- □□/□□: □□□□□□□□, □□□□□□□□□□□□, □□□□□□□, □□□□□□
- □□□□: □7□□□
- □□□□: 70□

□□□□□(032-831-5066)

인천음악플랫폼
개관 기획전



인천

2018
06.28^{Thu}
-
08.23^{Thu}

인천음악플랫폼
음악홀
월요일·공휴일 휴관

합창의 궤적






주최·주관 인천문화재단 문의 인천문화재단 개항장플랫폼팀 032.455.7178

000000 0000000(0000 : 000) 2018 00 000 <00 000 00> 6 28 00
00000 00000 0000. 00000000 00 1, 0 000000 00 (0)000 000 0000
0000 000. 00 00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0 00 00 000 000 0
000 0000. 00 000 0000 00, 00 00000 000 0 00.

00 000000 300 0000 60 00 00 00 000 0000. 10000 00 000 000 000
0 00 00000(1897, 0000 00), 00000 060000(1935, 00000000 00)0, 20
000 00 000 000 000 00000(1954, 0000 00) 00, 0000 00000 0000 000

김민정(1962년, 1980년, 2000년) 강경석(1981, 2000년), 문학동네, 30000 원, 032-455-7178,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인천(1995, 2000년) 문학동네, 20000 원.

032-455-7178

2018 문학동네 작가 토크 <김민정, 강경석 : 아름다움과 쓸모없기>

2018 한국근대문학관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

인천, 시인과 만나다

제4회

김민정 x 강경석
6월 30일 17:00, 한국근대문학관



김민정

1976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날은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 『이 있고, 신문집으로』, 『각설하고』, 『가 있다』, 『박인환문학상, 현대시작품상을 수상했다. 문학동네의 문학동네시인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판사 난다의 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이르러지자 제과 제 사이에서 이르러져보자
근대 나 언뜻부리기 어론일까
그대가 이데다 놓여주는 오뚜마기
그런 거 어이 없나 그런 거 어이 있어야
물도 놓고 돈도 놓고 아름다움도 놓는데
개입감이 놓는 건 저승계 위해 내 상 가아니라니
- 김민정, 『이론이 되면 친제학을 해아지』 중에서

『아름답고 쓸모없기』
(문학동네, 2016)



강경석

문학평론가.
200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6□ 30□ 17:00~18:30
- □ □ : □□□□□□□□ 2□ □□
- □ □ : □□ □ □□□ □□□□([□□□□ ▶](#)), □□

□□□□□□□(032-773-3801)